

무등산생태탐방원이 추천하는

# 생태관광 나들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생태관광 지도

광주호

데크길

데크길

광주호  
호수 생태원

무등산생태탐방원

충효제



식영정



한국가사문학관



지실마을



충효동  
왕버들



환벽당



취가정

충효동  
정려비각



소쇄원



충효분교



평촌명품마을



풍암정



## 목차

생명과 사람이 하나 되는 무유등등의 산. 무등산국립공원 4

도심 속 일상을 떠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곳. 무등산생태탐방원 10

###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생태 관광지

나를 두고 거닐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14

세월을 품고, 사람을 품은 그 넉넉한 기상. 충효동 왕버들 16

꽃 보다 권 있는 사람들. 무등산평촌명품마을 18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숲을 만나다. 메타세쿼이아길 19

맑은 강바람 쐬며 삼백년 숲길을 걷다. 관방제림 20

맑은 대숲의 소리를 듣다. 죽녹원 22

느린 나를 만나다. 창평슬로시티 삼지내마을 24

영산강, 장구한 물길의 시작. 가마골생태공원 16

###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역사문화 관광지

그림자도 쉬어 가는 곳. 식영정 28

맑고 깨끗한 최고의 원림. 소쇄원 30

밝아서 진실로 상쾌한 집. 환벽당 34

의병장 김덕령의 못다 이룬 꿈이 깃든 곳. 충장사 38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여. 취가정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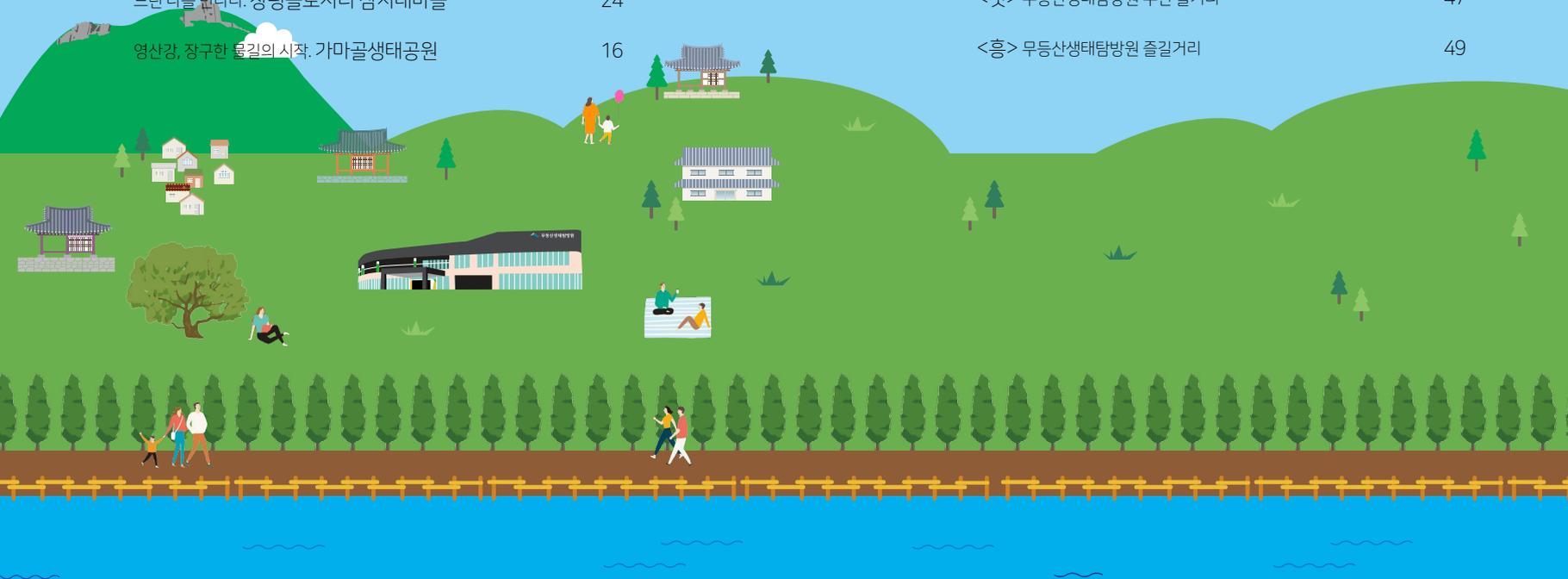
풍암에 서린 슬픈 회한. 풍암정 43

###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즐길거리

<맛>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먹거리 46

<멋>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볼거리 47

<흥> 무등산생태탐방원 즐길거리 49





## 생명과 사람이 하나 되는 무유등등의 산 무등산국립공원

### 생태자원

봄날 무등산을 붉게 수놓는 철쭉과 진달래, 물 맺힌 물봉선과 신수국의 함초롬한 표정이, 함박꽃나무의 새하얀 환한 웃음을 만날 수 있는 곳 국립공원 무등산입니다. 가을이면 파란 하늘에 매달린 붉은 단풍과 은빛 억새, 맑은 겨울 아침에 펼쳐진 눈부신 설경 등 생태경관이 우수한 무등산은 무등산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65호)를 비롯해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무등산에 여러 생물종<sup>種</sup> 가운데 중요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대중은 수달과 털조장나무가 있습니다.



### 역사·문화자원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있는 넓은 산입니다. 무등산은 그 안온한 품에 광주를 안고 그 펼쳐진 품안 자락마다 곁을 내어줘 마을을 만들고 사람을 길러 지금의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만큼 광주의 역사와 아픔을 함께 안은 산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광주호 상류계곡에는 취가정과 환벽당, 그리고 원효계곡의 풍암정 등 무등산 곳곳마다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뿌리내린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멋이 담긴 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 지질자원

무등산을 찾는 이들이 첫 번째로 인상 깊게 꼽는 곳이 상징하는 서석대, 입석대와 광석대입니다. 이곳은 그 모양새와 지질의 특성으로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기둥 200여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주상절리대인 서석대는 해발 1,000m에 자리한 천연기념물입니다. 약 8,7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저녁노을이 물들 때 반사되는 강한 빛이 수정처럼 반짝거린다 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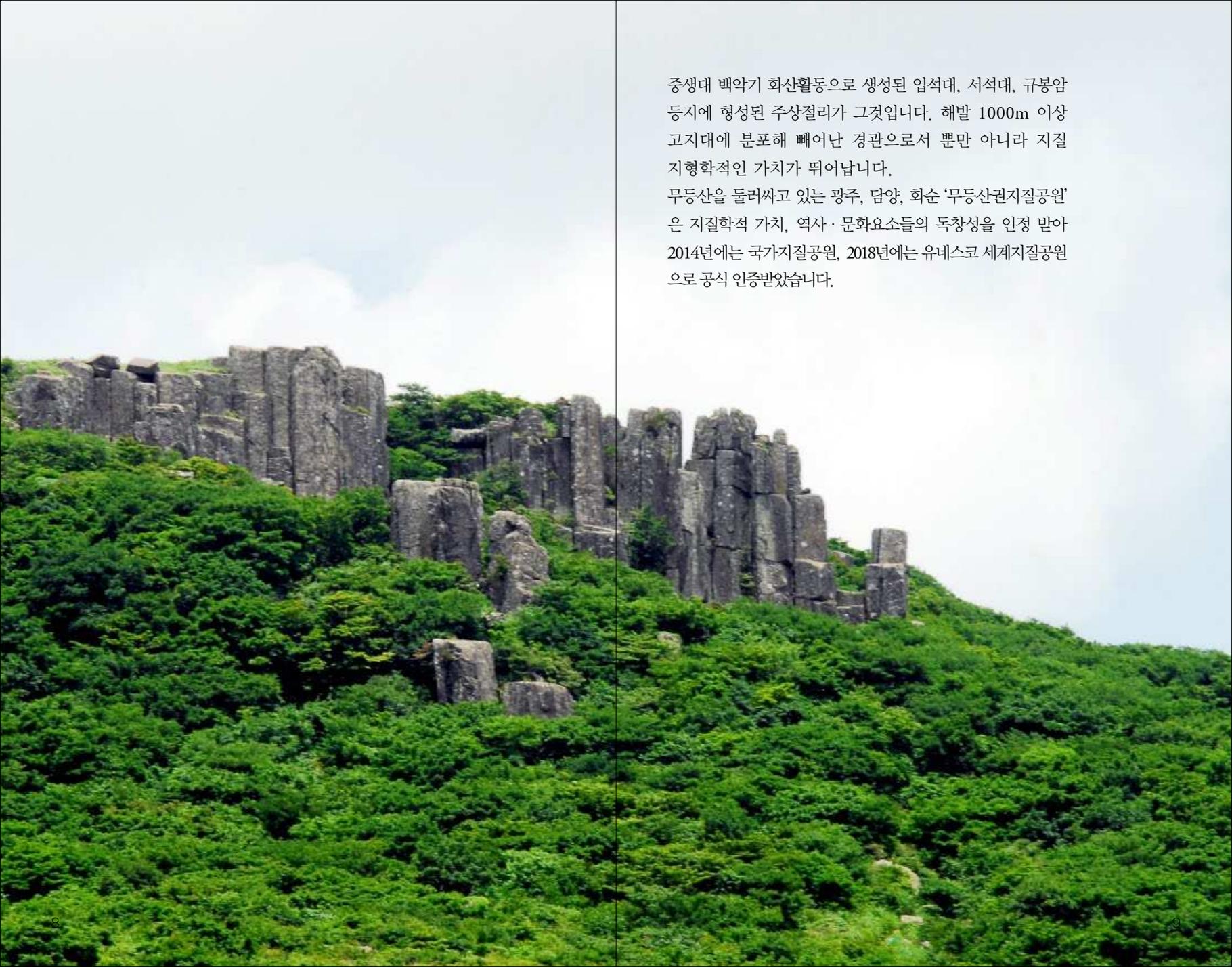
병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입석대는 해발고도 950m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로 40여개의 5~6각형 돌기둥이 반달같이 둘러서 있으며, 그 틈에는 이끼 등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냅니다.

광석대는 무등산의 주상절리 중 가장 큰 주상절리대입니다.

규봉암과 함께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을 뽐냅니다.

무등산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지에 형성된 주상절리가 그것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 분포해 빼어난 경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질 지형학적인 가치가 뛰어납니다.

무등산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 담양, 화순 '무등산권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 역사·문화요소들의 독창성을 인정 받아 2014년에는 국가지질공원,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도심 속 일상을 떠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곳  
**무등산생태탐방원**

늘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하루와 번잡한 일상을 떠나 자연에서 '나'를 찾고 자연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무등산생태탐방원'입니다.

무등산생태탐방원은 무등산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생태와 역사·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거점 시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태탐방원은 다양한 연령과 수준별 맞춤 환경교육을 비롯해 생태문화

가 어우러진 최고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원 주변 광주호수생태원의 푸른 물빛과 살갑게 흔드는 나뭇잎들, 그 안에 담긴 파란하늘, 무등의 하늘 언저리를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오늘과 자연'입니다. 그 넉넉한 심 자리에 무등산생태탐방원이 빈 의자 여럿 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덕의길  
 20(충효동)  
**전화**  
 062)263-1187  
**버스**  
 충효 187번 석  
 제정류장 정차  
 후 도보 5분

## 무등산 생태탐방원 프로그램 안내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생태 관광, 미래세대 환경교육, 안전산행 교육 등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생태관광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집점인 자연친화적 관광

### | 환경교육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을 위한 자연체험형 친환경 교육

### | 전문가교육

교육직무연수 등 전문교육 시행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을 위한 자연체험형 친환경 교육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자연·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연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

## 무등산생태탐방원

# 주변 생태 관광지





나를 두고 거닐다

## 광주호 호수생태원

도심 인근에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곳은 많지 않지만 바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여유 있는 쉼과 생태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자연관찰 학습장(1만9000평), 잔디휴식광장(1만3000평), 수변습지(2만4000평)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연관찰 학습장 안에는 토양곤충서식지, 생태연못, 물레방아, 돌무지, 솟대 등이 있다.

잔디휴식광장 주변에는 장미·철쭉·수국과 야생화 등 65가지 17만 뿌리가 심어진 꽃 단지가 조성돼 있다. 또 수

**주소**

광주 북구 충  
효동 442-7

**전화**

062-613-7891

변 습지 주변엔 관찰대 4곳이 호수 안쪽으로 T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호수안의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다. 버드나무 군락지와 전망대 시설도 갖춰져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다양한 생물의 터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여 생태계보전에 기여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살이'와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서 느낄  
수 있는 광주  
호 호수생태원



세월을 품고, 사람을 품은 그 넉넉한 기상

## 충효동 왕버들

광주에서 유일한 노거수 천연기념물은 무엇일까? 김덕령 장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충효동왕버들이다. 2012년 문화재청은 충효동 왕버들나무들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했다. 수령이 430여 년이 된 왕버들 3그루는 역사적·문화적·생태학적으로 보존과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는 취지여서였다.

특히 왕버들나무는 김덕령 장군과 얽힌 이야기가 많아 ‘김덕령 나무’로도 불린다. 굵은 가지는 멋스럽게 뻗어 하

늘과 가깝다.  
나무 아래는 널찍한 돌이 놓여있다. 앉으면 낙원이다. 400년 동안 충효동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한 나무, 공덕이 깊다.

‘일송일매오류  
一松一梅五柳’라는 말이 있는데, 마을 앞에 심었던 나무의 숫자와 수종을 이른다. 원래 충효동에도 소나무 1그루, 매화나무 1그루, 왕버들 5그루가

있었다. 매화나무와 왕버들 한 그루는 말라 죽었고, 소나무 1그루와 왕버들 1그루는 길을 확장하면서 베어버렸다. 뒤에 매화나무와 버들나무, 소나무를 다시 심었다.

아름드리 한길이 넘는 키와 용솨음치듯 늠름한 모습을 지닌 충효동 왕버들은 430여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 왕버들’이다.

마을의 상징이자 비보림(裨補林,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숲인 충효동 왕버들은 넉넉한 그늘아래 사람들을 모으고, 마을을 지켜주는 구심이자 마을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샘길 7 (충효동)  
전화  
062-410-6622(북구청 문화관광과)





꽃 보다 권 있는 사람들

## 무등산평촌명품마을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평화로운 마을, 무등산평촌마을은 무등산 북쪽자락에 자리하여 동림, 담안, 우성, 닭피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마을들녘에는 평무뜰이 있어 친환경 우렁이쌀이 무럭무럭 자란다.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풍암천에는 사라진 반딧불이가 춤추고, 무등산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헤엄치는 생태마을이다. 2016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마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인 15세기부터 분청사기를 만든 지역으로, 남도의 예술혼을 잇고 있으며 '평촌도예공방'에서 그 해학 넘치는 그릇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농촌, 산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이 보존되어있는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의 정취와 그 곳을 터전으로 일궈온 사람들의 가슴 따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소**  
광주 북구 매봉로 118  
**전화**  
010-8611-4687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숲을 만나다.

## 메타세쿼이아길

담양읍내를 들어서서 군청 앞을 지나거나 외곽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메타세쿼이아길을 만난다. 울창한 듯 줄지어 단정한 푸르름으로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붙드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담양과 순창을 잇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주는 정취이다.

전국 제일의 가로수길로 설명되는 이 길은 마치 숲이 만들어 놓은 터널처럼 지나는 듯 색다른 감흥과 저절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은 온전히 숲이 주는 청량함이다. 또 가을이면 갈색 낙엽과 굵직한 가로수 도열이 마치 동화속 병정들의 열병식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1972년부터 나라에서 '전국 시범가로수'로 지정되었을 만큼 이름이 높다.

**주소**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12



맑은 강바람 쐬며 삼백년 숲길을 걷다

## 관방제림

연기념물 제366호인 관방제림(官防堤林)은 담양의 대표적인 생태역사문화자원이다. 담양천 물길이 넘어드는 것을 막아 백성들 살림을 살피고자 조성했던 '제방숲'이다. 이 숲길에는 아름답디 수백년을 품어 온 나무들과 함께 옛 담양사람들의 슬기와 역사, 땀이 담이 새겨져있다.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한 담양천의 잦은 풍수해를 막고자 인조 28년(1648) 담양부사 성



이성은 제방을 쌓고, 철종 5년(1854) 부사 황종림이 다시 제방을 보수하고 숲을 조성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관방제림의 산책길은 그 어느 때 오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걷고 싶은 길로 손꼽는 곳이다. 수령 350여년이 넘은 노거수들의 당당한 모습과 더불어 드리운 널따란 그늘은 사람들을 모으고, 벚꽃 휘날리는 봄날의 정취도, 녹음에 지쳐 울어대는 매미의 노랫소리에 걷는 길손도 다리쉽을 한다. 무더운 여름날의 기억을 담은 낙엽은 가을을 햇살을 붙잡아 고운 빛깔을 던지며, 오는 겨울의 아쉬움을 뒤로 한다.

주소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37



맑은 대숲의 소리를 듣다

## 죽녹원

담양읍 향교리에 위치한 죽녹원<sup>竹綠苑</sup>은 마을 뒤 천연 대나무 숲을 이용해 담양군에서 조성한 대한민국 최고의 죽림욕장입니다. 341,981㎡의 부지에 분죽, 왕대, 맹종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숲을 이룬다.

특히, 댓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sup>竹露茶</sup>



주소  
담양군 담양  
읍 죽향문화로  
378  
전화  
061-380-  
2690

가 자라고 있다. 대숲 길 이름도 어여쁩니다. 운수대통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죽마고우길 등 어여쁜 그 길을 따라 대숲을 거닐어보면 좋겠다.



느린 나라를 만나다

## 창평슬로시티 삼지내마을

슬로시티란 인구 1만 4,000명인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에서 1999년 여름 당시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파올로 사투르니니씨가 마을 사람들과 세계를 향해 '느리게 살자'고 호소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슬로'라는 것이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슬로시티의 시작은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슬로시티는 "먹을거리야말로 인간 삶의 총체적 부분"이라는 판단에서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슬로시티는 전세계 101개 도시가 동참하고 있으며 2007. 12. 1일 아시아 최초로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 마을이



지정되었다. 낮은 돌담길과 조붓한 골목길엔 이야기가 가득하고 담장을 따라 굽이치는 물길에는 햇살이 투명하다. 그 곳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푸근한 햇살처럼 여유 있는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란, 바로 슬로시티 삼지내가 조용히 건네는 느린 시간과 여유의 맛이자 소박한 사람들이 전하는 격려이다.

주소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56-24



## 영산강, 장구한 물길의 시작 가마골생태공원

350리 유장한 물길,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소가 자리한 추월산 용추봉을 중심으로 사방 약 4km의 주변 지역을 '가마골'이라 부른다. 이곳은 높이 300~600m 정도의 여러 개의 계곡이 어우러 사시사철 맑은 물과 숲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계곡들 사이로 아름다운 용담 제1폭포, 2폭포가 있으며, 봄에는 상큼한 신록의 멋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녹음이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이곳은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가마골은 가마터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골 용소의 시원정과 출렁다리가 유명하고 야생화 5000여본, 향토수목이 식재된 자연학습원이 있어 우리식물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주소  
담양군 용면  
용소길 261

# 무등산생태탐방원 주 변 역사문화 관 광 지



## 그림자도 쉬어 가는 곳 식영정

식영정은 빼어난 경치와 석천의 인품 덕에 송순, 김윤제, 김인후, 기대승, 양산보, 백광훈, 송익필, 김덕령, 정철 등 호남 사림의 명현들이 즐겨찾던 곳이었다. 특히 이들 중 석천 임억령, 서하당 김성원,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을 일러 당대 사람들은 '식영정 사선<sup>四仙</sup>'이라 불렀다. 이들은 성산의 좋은 경치 20곳을 택해 각각 20수씩 모두 80수

광주호 끝자락  
성산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품은 식영정

로 이루어진 '식영정 이십영'을 지었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송강의 「성산별곡」이 완성됐다.

식영정은 가운데에 방을 배치하는 다른 정자와 달리 한쪽 귀퉁이로 방을 배치하고 앞쪽과 옆쪽에 마루를 간독특한 구조다. 식영정 옆에는 '송강집'의 목판을 보관하던 장서각과 부용당이 있고, 입구에는 「성산별곡」시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이곳 식영정은 가까이 무등산이 보이고 아름다리 자란 소나무와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광주호의 풍경이 있어 정자의 풍치가 빼어나 명승 제 57호로 지정되어있다.

### 주소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로  
859

### 전화

061-380-  
3151(담양군  
녹색관광과)

어떤 지날 손이 성산이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말 들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 많건 만은  
어찌 한 강산을 그처럼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 아니 나오시는고

성산별곡 중에서/ 정철



가사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성산별곡'의 배경이 되었던 식영정



맑고 깨끗한 최고의 원림

## 소쇄원

소쇄원(瀟灑園)은 한국 최고의 원림(園林)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시대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소쇄원은 역설적이게도 슬픈 공간이다. 한 선비의 좌절된 꿈이 소쇄원에 고여 있다. 개혁정치의 깃발을 들고 기성관료정치에 맞

서 조선을 개혁하려다 반대파에 의해 무너져 버린 정암(靜庵) 조광조(1482~1519), 그를 스승으로 모시던 양산보는 스승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자 세상의 명리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열여덟이었다.

양산보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지닌 소쇄원의 이름처럼 세속의 명리를 향한 욕망을 비워내고 맑고 깨끗한 세상의 염원을 이곳 소쇄원에 구현하며 살았다. 입구의 대숲조차

한국최고의 원림으로 이름 높은 소쇄원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인위의 공간이지만, 건축인지 정원인지 모를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양산보는 5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 소쇄원에서 은둔 안에서 삶을 길을 찾았지만 세상과의 단절만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양산보의 이런 철학은 ‘오곡문’에서 보이듯 소쇄원의 곳곳에 담겨있다. 소쇄원은 막힘이 없다. 물도 막힘없이 흐르고, 바람도 막힘없이 드나든다. 돌담마저 경계가 없다. ‘ㄱ’자인 담은 안과 밖을 나누지만 가로막지 않는다. 유홍준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소쇄원을 두고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인공을 가하여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공간을 창출한 점에 그 미덕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찬이 아니다. 소쇄원에 대한 양산보의 애착은 깊었고, 마지막 유언에서 절정을 보여준다.

이 땅은 어느 언덕이나 골짜기를 막론하고 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 상함이 없도록 하며,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는 결코 물려주지 말지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우움을 보여주는 소쇄원 광풍각

#### 주소

전남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

#### 전화

061-380-3151(담양군 녹색관광과)

## 오곡문

담은 물길을 막지 않고 물 위로 서있다. 오곡문(五曲門)을 통과한 계곡물은 작은 바위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그 옆으로 난 나무 수로는 물길을 작은 연못으로 나눠준다. 연못에서 넘친 물은 흘러 다시 계곡으로 들어간다.

오곡문은 넓적한 바위를 걸쳐 다리를 놓은 후 그 위에 담장을 올려 담장과 계곡의 물길이 서로를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배려의 문이다. 담장 밑으로 흘러든 물이 암반 위에서 다섯 굽이를 이룬다 해서 ‘오곡문’이라 칭했다. 또한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빗대 ‘소쇄구곡’에서 제5곡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이구곡에서 제 5곡은 주자가 공부했던 무이정사가 있던 곳으로 9곡 가운데 가장 중심지였다.

오곡문의 열림은 소쇄원에서 양산보가 걸었던 길과 닮아 있다. 소쇄원에서 양산보는 은둔의 삶을 지향했지만 안에서 밖으로 열려 있었다. 양산보의 시대는 불우했고, 세속과 담을 쌓은 선비들은 스스로 깊어졌다. 양산보는 생각이 같은 선비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세상의 이치가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를 논했다. 소쇄원과 인연을 맺은 당대의 선비들은 모두 거목들이다. 송순, 임억령, 김인후, 유희춘, 기대승, 고경명, 김성원, 정철, 백광훈, 김윤제. 실패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그들에게는 깊게 놓여 있었다.





밝아서 진실로 상쾌한 집

## 환벽당

환벽당은 나주목사를 지낸 사촌沙村 김윤제(1501~1572)가 을사사화 때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정자이다. 환벽당環壁堂은 '푸르름으로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곳'이란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다. 정자의 주변을 대숲이 감싸고 있어 신숙주의 증손인 신잠(1491~1554)이 환벽당이라 당호를 지었다.

앞면 3칸이며 옆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방을 두어 기거

1540년대 나주목사를 지낸 사촌 김윤제가 건립한 환벽당 명승 제107호



할 수 있게 하였다.

1717년 봄, 이곳 환벽당을 찾은 삼연三淵 김창흡(1653~1722)이 남긴 『남유일기南遊日記』에 환벽당의 옛 모습이 남아있어 이곳의 정취를 짐작케 한다.

커다란 대나무와 가늘고 긴 대나무 등 단란檀栾의 울창함이 백 이량이나 되는 언덕에 그림자를 비치었다. 돌을 쌓아 냇시터를 만드니, 수백간은 될 만하고, 지극히 즐길 만하다. 당우堂宇는 밝아서 진실로 상쾌



삼연 김창흡선생초상(1653~1722) 천리대



산보와 면양정 송순(1493~1583)은 이종 간이다. 고경명(1533~1592)도 그의 조카와 결혼을 했으며 김윤제는 또 김덕령의 종조부였다. 특히 나중에 가시문학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송강松江 정철(1536~1593)은 그 시절, 김윤제의 제자였다. 환벽당의 주인 김윤제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는 회재懷齋 박광옥(1526~1593)의 '애도시'한 편에 모두 담겨 있다.

주소  
광주 북구 환벽당길 18-9  
전화  
062-410-6622(북구청 문화관광과)

청한 시절 급제하여 벼슬하였고  
흰 머리로 젊은이들 가르쳤었네  
지방관을 역임할 제 은혜 끼쳤고  
은퇴해도 노신으로 자문했었네  
지초 난초 구원에 가득하였고  
금과 술로 좋은 때를 즐기었다네  
홀연히 신선세계 놀던 꿈 깨어  
포연히 진세를 벗어나셨네.



하계 살 만하며, 집의 서쪽 층계에는 매화와 동백을 심고, 중간에는 작은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어 놓아 골골 마다 묘함을 더 했다. 당龕에 앉아 붓물을 바라 보면, 반짝반짝하는 푸른 물결이 대나무 사이에서 생겨난다. 소나기가 얼핏 내리자 소슬한 바람소리가 흥을 돋우니 이에 시 한 수를 남기고 돌아간다.

환벽당의 주인 김윤제는 덕이 깊었다. 때문에 명망이 높았던 선비들이 그를 찾아 환벽당에 자주 모였다. 김윤제는 증암천 건너 마주한 소쇄원瀟灑園의 주인인 양산보(1503~1557)의 매형이고, 식영정息影亭을 세운 서하당棲霞堂 김성원(1525~1597)의 숙부다. 김성원은 또 석천石川 임억령(1496~1568)의 사위였다. 처남 양산보와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는 사돈 간이며 양





의병장 김덕령의 못다 이룬 꿈이 깃든 곳

## 충장사

무등산 자락 금곡동에 자리한 충장사는 의병장 김덕령장군의 아픈 삶을 회고하는 곳이다. 임진왜란 조선 의병의 충수였던 김덕령(1567~1596)은 충청도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러 갔다가 적장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썼다. 1596년 8월21일, 김덕령은 끝내 옥사했다.

의금부에 갇힌 옛새 동안 여섯 번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 끝까지 초연했다. 정강이뼈가 부서지는 고문 앞에서도 “충효로써 죽음을 삼은 죄밖에 없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안타까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의금부에 갇힌 김덕령 장군은 음모의 늪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았다.

의병장 김덕령  
의 회환이 깃  
들어 있는 충  
장사



그는 옥에서 ‘춘산곡(春山曲)’을 지어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다.

봄산(春山)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불는다.  
저 뾰 저 불은 끝 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의 내 없는 불이 나니 끝 물 없어 하노라



광주공원에 세  
워진 김덕령장  
군의 '춘산곡'  
시비



##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여 취가정

환벽당에서 창계천 물길을 따라 200여 미터 쯤 오르면 취가정(醉歌亭)이 있다. 취가정은 '술 취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다. 김덕령이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뒤 그 아픔을 처연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 정철의 제자였던 석주(石洲) 권필(1569~1612)이다. 어느 밤 꿈에 권필은 작은 책자를 얻었다. 김덕령의 시집이었다. 맨 앞에 놓인 시가 아팠다. 취시가(醉詩歌)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  
구 송강로 13  
(금곡동)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 아무도 듣는 이 없네  
나는 꽃과 달에 취함도 원치 않고  
공훈을 세우고도 싶지 않네  
공훈을 세움은 뜬 구름 다름없고  
꽃과 달에 취함도 뜬 구름 한가질세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내 마음 다만 바라기를  
긴 칼 들고 밝은 임금 받들고 싶을 뿐.

권필은 꿈속에서 그 시를 세 번 되풀이해 읽었다. 잠에서 깬

'취시가'에 담  
아낸 김덕령의  
절절함이 배어  
있는 취가정  
광주광역시 문  
화재자료 제  
30호

권필은 답가 한 수를 지었다. 권필이 시를 지어 김덕령 장군의 원혼을 달랜 것이다.

장군께서 지난 날 칼과 창을 잡았으나  
장한 뜻 중도 꺾일 운명임을 어이하리  
지하의 꽃다운 넋 운명임을 어리하리  
한 곡조 취시가에 뚜렷이 담겼어라.



취가정은 그렇게 충장공이 취했을 때 부른 노래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1890년 김만식은 문중과 협력해 취가정을 지었다. 김덕령장군의 아픈 삶을 위로하기 위한 건립이었다. 원래의 취가정은 한국전쟁 때 전부 불에 탔다. 지금의 건물은 후손 김희준이 1955년에 증건한 것이다.



## 풍암에 서린 슬픈 회한 풍암정

풍암정은 무등산 자락과 담양의 정자들 중 가장 아름답다. 정자의 주인은 김덕령장군의 동생 풍암(楓巖) 김덕보(1571~1627)다. 1596년 8월, 김덕보는 하늘이 무너지는 급보를 듣는다. 의병장이었던 형 김덕령이 역적으로 몰려 의금부로 압송됐다는 전언이었다. 김덕보는 급하게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다. 의금부 앞에서 김덕보는 오래 기다렸다. 형에 대한 추국은 옛새 동안 계속됐다. 그는 형이 살아서 의금부를 걸어 나올 것으로 믿었다.

1596년 8월 21일, 마침내 추국이 끝나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의금부의 문이 열렸다. 형은 의금부의 문을 살아서 걸어 나오지 못했다. 싸늘하게 식어진 시체로 들것에 실려 나왔다. 형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나라를 살리려 한 것밖에 없다. 명백히 형의 죽음은 억울했다.

김덕보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다.

김덕보는 형의 시신을 거뒀다. 형의 시신을 옮겨 신고 10일을

어두운 시대  
그 한 가운데  
를 울곧게 건  
너가고자 했던  
김덕보의 치열  
함이 담겨있는  
풍암정



걸어 9월초 광주 '석저촌'에 도착했다. 김덕보는 형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고한 형을 무참하게 죽인 임금과 세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숨겼다. 철저한 은둔이었다.

화순과 지리산 자락을 거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1602년이였다. 그는 풍암정을 짓고 거기 마음을 기댔다. 하지만 세상에 담을 친 것만은 아니었다.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다잡는 치열하고 긴 시간 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무덤은 형의 무덤 옆에 자리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풍암정 주변을 가득 덮었다는 단풍의 붉은 빛을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14년 송강 정철의 넷째 아들 정홍명이 쓴 <풍암기(楓巖記)>에는 풍암정의 진짜 면모가 담겨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암괴석 사이에 100여 그루의 단풍나무가 끼어 있어 흐르는 시냇물조차 붉었다. 수석의 뛰어난 경관을 비교하여 볼 때 모두 오늘의 이곳을 따를 수 없다.

김덕보의 회한이 담긴 풍암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1990년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로 지정됐다.

무등산자락과 담양의 정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품은 풍암정

**주소**  
광주 북구 풍암제길 117  
**전화**  
062-410-6622  
(북구청 문화관광과)

## 무등산생태탐방원

# 주 변 즐길거리

# 맛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먹거리

## 담양, 송정 떡갈비

육즙이 가득한 한우의 깊은 맛이 담긴 담양떡갈비와 갈비살을 곱게 다져 양념하여 부드러운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송정 떡갈비가 있어 서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한정식

전라도의 신선한 제철음식이 가득 담긴 한정식은 남도만의 진미와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담양 국수거리

담양에는 관방천 뚝방길 위로 쪽 늘어진 국수거리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진한 육수가 담긴 멸치국수부터 열무 비빔국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유동 오리탕

미나리와 들깨가루가 들어간 오리탕은 광주에 오리탕거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몸보신용 탕입니다.



# 멋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볼거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 교류와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유통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시설로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그리고 어린이 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화 | 1899-5566



## 광주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미술 박람회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에는 수백 명에 이르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한 가지 주제로 모인 작품들을 여러 전시 공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수가 워낙 많고 공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시만별로 주제와 작품 구성을 미리 살펴보고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어 갈 작품

과 작가를 선보이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보다 흥미롭게 감상하고 싶다면 주제별로 나누어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시장에 펼쳐진 수만 가지의 이미지 속에서 주제별로 기준을 정하여 작품을 찾아내고 관람한다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      전화 | 062-608-4114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100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통로이자 희생과 나눔의 공동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역사의 시작점이며, 문화자원 중심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양림동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양림역사문화마을은 서양식 근대 건축물과 한옥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의 공간입니다. 광주의 의료와 교육을 발전시킨 우일선 선교사의 사택, 조선 상류층 가옥의 풍채가 전 해지는 이장우 가옥, 민주화의 어머니이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신 조이라 여사를 기리는 조이라 기념관, 농촌을 살리기 위해 애쓴 농촌지도자 어비슨의 기념관,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을 기리는 오웬기념각, 정율성 업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정율성 거리,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폐품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꾸며낸 펠리니움 등 근대와 현대의 다양한 매력이 공존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서평길 7      전화 | 062-676-4486

# 이

## 무등산생태탐방원 즐길거리

### 광주전통문화관



무등의 품속에서 우리의 옛것을 보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관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무형문화재전시관과 토요일·일요일 상설공연 등 신명나는 전통국악 공연으로 함께 각종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의대로 222 전통문화관  
전화 | 062-232-1501



### 추억의 총장축제

7080 향수를 소환한 추억의 총장축제는 매해 가을에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도심 길거리 대표 문화 축제입니다.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거리, 추억의 고고장, 도심 별밤캠핑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소 | 광주 동구 총장로 금남로,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일원  
전화 | 추억의 총장축제 사무국 062-608-3330~3



## 대나무축제

전라남도 담양은 죽세공품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다양한 대나무의 고장으로 매년 5월에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대나무와 밀랍을 이용한 밀랍초 만들기, 대나무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대나무 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됩니다.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      전화 | 061-380-3150, 3152